

# 광주 대학부 남녀 양궁 새내기 신궁 예약

광주여대 김민서·조선대 김정훈 양궁종별선수권 입상  
김민서 금·은·동...기보배·최미선 이을 미래 국가대표  
김정훈 은...시즌 첫 대회 50m 깜짝 메달 올 시즌 기대



김민서



김정훈

대학부에 막 진입한 광주의 1학년 남녀 양궁선수가 올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광주는 물론 한국의 미래 양궁을 이끌 유망주로 떠올랐다.

지난 22~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된 제53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대학부 경기에서 광주여대 김민서(1년)가 여자대학부 금·은·동 메달을, 조선대 김정훈(1년)이 남자대학부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등부에서 실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대학부에서는 첫 대회이고 내로라 하는 고학년 선수들을 제치고 따낸 메달이기에 올 시즌 다른 대회는 물론이거니와 미래 국가대표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는 1966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이후 53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수 선수를 발굴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

다. 올시즌 첫 대회로 대한민국 양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이기도 하다.

김민서는 지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30m에서 357점을 쏘 차승희(경희대 2년)·장민희(인천대 2년)와 공동 1위에 올랐다. 357점은 대회 타이 기록이다.

전날 60m에서는 박연경(계명대 1년·345점)에 2점 모자란 343점을 기록, 전완서(한체대)·임해진(창원대 4년)과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서는 70m 329점 8위, 50m 334점 14위를 하면서 개인종합에서 1,363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차승희(1,374점), 2위는 박연경(1,367점)이 각각 차지했다.

김민서는 대전체고 2학년때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뒤 올해 광주여대로 진학했다. 김민서는 광주여대 출신인 기보배(광주시청)와 최미선(순천시청)에 이어 한국 여자양궁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남대부에서는 조선대 김정훈(1년)이 50m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정훈은 50m에서 341점을 기록, 황석민(배재대)·이승불(계명대)과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342점을 쏜 남유빈(배재대)에게 돌아갔다.

김정훈은 90m에서 314점으로 7위, 70m에서 332점 10위, 30m 353점 19위를 하면서 개인종합 1,340점으로 강석(경희대)과 공동 5위를 기

록했다.

광주체고 출신인 김정훈은 고교 2학년이던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에 남고부 50m 금메달(339점)을 획득한 유망주다.

이번 종별대회는 올시즌 첫 대회로 1학년 선수의 입상은 기대하지 않았으나 김정훈이 메달을 획득하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성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사는 “김민서는 대전체고 시절부터 잘 하던 선수로 기보배와 최미선을 이어 광주여대를 대표하는 선수는 물론 국가대표로도 활약할 것”이라며 “경기장에서의 컨트롤, 경기능력이 매우 좋

다. 기술만 더 늘어나면 국가대표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훈에 대해서도 “원래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고향에 남기로 하면서 조선대에 입학했고, 서울체고 출신의 이진용도 조선대에 입학하면서 함께 공부하며 훈련하고 있다”며 “올 가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일반부에서 광주시체육회 임지완이 70m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여자일반부에 나선 광주시청이 노메달로 쉬움을 남겼다. 순천시청 이은정은 30m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 ‘절친’ 류현진·강정호 27일 첫 맞대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2)이 동갑내기 맞수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첫 대결을 준비한다.

다저스 구단은 25일(한국시간) 취재진에게 배포한 게임 노트에서 류현진의 등판일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27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5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밀워키, 시카고에서 원정 7연전을 치르고 홈에 돌아와 벌이는 피츠버그와의 홈 3연전의 서막을 연다.

이번 등판은 강정호와와의 한국인 투타 대결로 더욱 관심을 끈다.

2013년 KBO리그에서 최초로 빅리그로 직행한 류현진과 2015년 류현진의 뒤를 이어 KBO리그에서 빅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야수 강정호는 아직 빅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없다.

류현진이 한창 활약하던 2013~2014년엔 강정호가 없었고, 강정호가 빅리그에 발을 내디딘 2015년 이후엔 류현진이 수술로 재할 중이었다.

강정호가 서울에서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2017년을 통째로 날리고 2018년 어렵사리 빅리그에 돌아온 통에 류현진이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도 격돌할 기회가 없었다.

KBO리그에서 성적은 류현진이 강했다. 류현진은 강정호를 상대로 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30타수 5안타)만 내줬다. /연합뉴스

## 한국 아시아육상선수권 사상 첫 노메달

2019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43개 종목에 걸린 129개의 메달 중 한국의 몫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한국이 21~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1973년 시작해 23회를 맞은 아시아육상선수권에서 한국이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한국 육상의 가장 낮은 성적은 동메달 2개였다. 2013년 인도 푸네에서 치른 20회 대회에서 한국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단 한 명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대회 마지막날 메달을 기대했던 정혜림(32·광주시청)과 우상혁(23·서천군청)도 부진했다.

정혜림과 우상혁은 2017년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여자 100m 허들 과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올해는 두 선수 모두 7위에 그쳤다. 정혜림은 24일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13초 50으로 부진해 7위에 머물렀다.

기무라 아야코(일본)가 13초 1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천자민(중국)이 13초 24로 1위를 차지했다. 아오키 마스미는 13초 28로 3위에 올랐다.

2017년 아시아선수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정혜림은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13초 04)은 물론 시즌 베스트 기록(13초 11)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를 냈다.

우상혁은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19로 공동 7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여기가 바로 빈틈 25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동아시아클럽 핸드볼선수권대회 한국 SK 호크스와 일본 도야타 브레이브킹스의 경기. 전반전 SK 호크스 허준석이 슛하고 있다. 도요타가 32-27로 이겼다. /연합뉴스

## 무패행진 광주FC 다득점 승리 노린다

내일 오후 5시 안산 그리너스와 원정 맞대결

10G 무패 도전...외인·복귀 선수 활약 기대



K리그 정규라운드 순위 산정 방식은 승점→다득점→득실차 순이다. 승점→득실차→다득점 순에서 2016시즌부터 바뀌었다. 다득점을 우선순위로 한 것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한 골이라도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에게 이점을 주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K리그1에서 10위 상주와 11위 서울의 순위는 다득점에서 같았다. 승점(40)은 같았으나 득점에서 상주가 41득점, 서울이 40득점이었고 순위가 11위로 밀린 서울이 승강플레이오프에 나서야 했다.

광주FC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

난 2014년 승격 당시 2부리그에서 득실차에 의해 FC안양을 밀어내고 준플레이오프에 극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득실차 우선이었다. 만약 현재처럼 다득점 우선이었다면 FC안양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것이다. 당시 광주는 41득점, 안양은 49득점이었다.

올시즌 K리그2 우승을 목표로 하는 광주는 승리와 함께 다득점도 쟁겨야 한다.

현재 광주는 승점 15점으로 리그 1위다. 하지만 2위 부산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부산의 승점은 14점이다. 문제는 부산의 득점(17)이 광주(13)보다 많아 양팀의 승점이 같아질 경우 광주의 순위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 8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다득점 승리를 노린다.

광주의 흐름은 좋다. 4월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FC전을 2-1 승리로 마무리했다.

펠리페가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시즌 9호골(득점 1위)을 기록했으며, 아솔마토프는 2경기 만에 세트피스로 데뷔 골을 터트렸다. 수비라인의 안정화, 여름과 박정수의 유기적인 움직임, 공격진의 득점력까지 강한 조직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안산은 지난 라운드 부산에 0-3 완패를 당했다. 전반전 분위기를 잘 이 끌었으나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강한 압박과 집중력이 장점인 광주가 안산전 다득점과 함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화 기자



##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 혼신”

1회부터 19년간 참여 5·18 의미 되새겨

### 5·18 미러톤 함께 뛰어요

### 농협 전남본부 150명 출사표

“전남 농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늘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5·18마라톤대회부터 해마다 참가하고 있는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 150여명은 19번째인 올해 대회에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출전하는 것은 5·18정신을 기리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려는 것이다. 또 함께 땀을 흘리며 뛰면서 직원들의 화합을 다지려는 뜻도 있다. ‘일석이조’ 효과다.

농협 전남본부 직원들은 마라톤 동호회 ‘러브미’를 운영하고

있다. 벌써 23년째로 회원이 200명을 육박한다. 놀라운 규모다.

평일에는 업무에 몰두하고 주말을 이용해 삼삼오오 짝을 이뤄 꾸준히 체력을 다졌다.

5·18마라톤을 비롯해 1년에 1~2차례 대회에는 꼭 참가해 서로를 격려하며 매번 완주하고 있다.

동호회원 대부분이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폴코스를 한발 한발 내딛으며 전국 최고 품질의 지역 농축산물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다질 참이다.

김석기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5·18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출발전에서 설렘과 열정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전남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전남장애인휠체어컬링 전국대회 우승

제4회 경기도지사배 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전남 스나이퍼 휠체어컬링팀이 지난 24일 인천훈련원 컬링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제4회 경기도지사배 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전남 스나이퍼 휠체어컬링팀(감독 김종일, 코치 김상국, 스킵 정승원, 썬더 박길우, 세컨 민병석, 리드 방민자, 후보 김국현)은 대회 결선에서 의정부 롤링스톤팀을 9-1로 꺾고 우승 컵을 안았다.

전남 스나이퍼 휠체어컬링팀은 전남 출신 국가대표급 선수들(정승원, 박복·방민자, 장성·민병석, 최순)로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당시 열린 응원을 해 준 전남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전남으로 이적했다. 지난 5일 훈련 개시식을 시작으로 2022년 베이징동계패럴림픽 출전 목표로 훈련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휠체어컬링팀이 올해 새로 구성되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막강팀인 경기도를 큰 점수로 제치고 우승을 거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